



THIS IS HOW TO DO COLLABORATION

Two starkly different objects have come together for a great piece of artwork.
Nick Hornby and Sinta Tantra have worked magic.



NICK HORNBY & SINTA TANTRA. PATRON:
EXPERIMENTS IN COLOUR #2, 2015,
MARBLE RESIN COMPOSITE, PAINT
60 X 27 X 35 CM UNIQUE © CHOI&LAGER
GALLERY COLOGNE / SEOUL

두 개의 전혀 다른 작품이 만나 하나의 멋진 작품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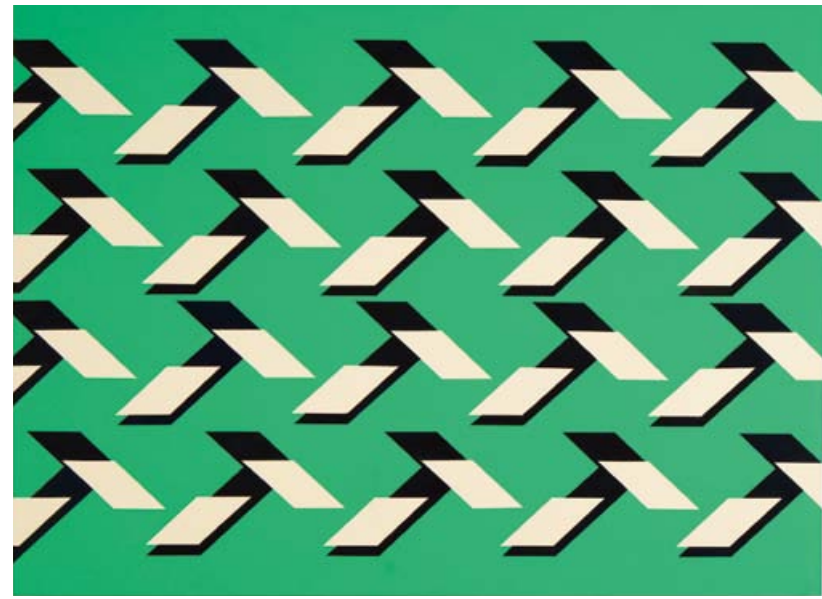


NICK HORNBY & SINTA TANTRA. MUSE:
EXPERIMENTS IN COLOUR, 2015, MARBLE
RESIN COMPOSITE, PAINT
59 X 29 X 28 CM UNIQUE © CHOI&LAGER
GALLERY COLOGNE /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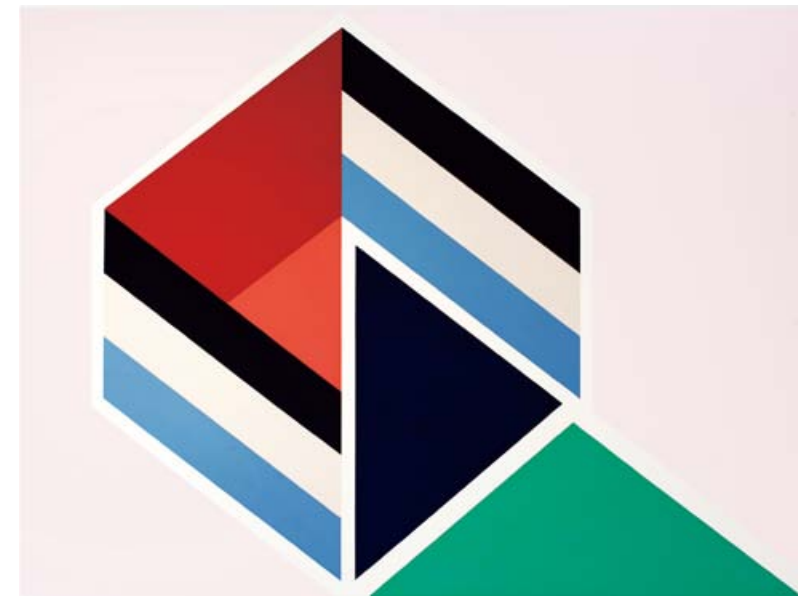
닉 혼비와 신타 텐트라가 만들어낸 마법이다.

NICK HORNBY & SINTA TANTRA. PATRON:
EXPERIMENTS IN COLOUR #2, 2015,
MARBLE RESIN COMPOSITE, PAINT
60 X 27 X 35 CM UNIQUE © CHOI&LAGER
GALLERY COLOGNE / SEOUL





SINTA TANTRA, OLD KOMBAT, 2014, VINYL TEMPERA PAINT ON CANVAS 110 X 150CM © CHOIGLÄGER GALLERY COLOGNE / SEOUL



SINTA TANTRA, EFFERVESCENCE IN PINK, 2014, VINYL TEMPERA PAINT ON CANVAS 200 X 150 CM © CHOIGLÄGER GALLERY COLOGNE / SEOUL

개성 강한 두 예술가가 동일한 작업을 대등하게 분담하여 제작하는 것.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작업은 매우 예민하기도 하며 많은 시간과 이해를 요구하는 협업일 뿐 아니라 그만큼 공동의 책임 또한 배가되는 일이다. 여기에 런던의 슬레이드 미술학교Slade School of Fine Art의 클래스 메이트이던 두 친구가 신뢰와 배려로 완성해가는 특별한 조각 페인팅이 있다. 정교함과 섬세함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계산된 조각을 만들어내

는 영국의 조각가 닉 혼비Nick Hornby 그리고 패턴과 어우러지는 예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인도네시아계 미국 아티스트 신타 탠트라 Sinta Tantra, 개성 강한 두 아티스트가 탄생시키는 공동의 작업들은 제3의 새로운 예술가의 작품이 되어 다시 태어난다. 영국 런던 템스 강 도크랜드에 위치한 신도시 카나리 워프Canary Wharf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캐나다 원 스퀘어의 로비는 매일 오고

가는 직장인과 방문자로 분주하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중심에 화려하고도 아주 매력적인 색감으로 단번에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거대한 조각상 하나가 서 있다. 닉 혼비와 신타 탠트라의 컬래버레이션 작품인 이 조각은 바쁜 직장인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지나가던 시민에게도 잠깐의 여유로운 시선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공공 미술이 각광받는 현대 미술계에서 그들의 작업은 아름다운 형태와 감각적 색채로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현대인이 살아가는 엄격한 분위기의 도심 속 차가운 공기 자체의 변화에 더 크게 주목한다.

순수하고 정교한 닉 혼비의 조각

닉 혼비의 작업은 미켈란젤로, 로댕, 브란쿠시 등 조각 예술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업에서 받은 영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불멸의 조각 작품과 현대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가 만나는 지점을 작업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생각하고 집중한다. 그가 작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대리석과 청동, 수지다. 닉 혼비는 이 재료로 전통 장인 기술의 수공예 기법과 고도의 계산, 가상화된 컴퓨터 3D로 설계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조각으로 완성한다. 그가 만드는 거대한 조각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연상시킨다. 상징적 윤곽을 중심으로 빛나도록 부드럽게 이어지는 흰색의 곡선과 예각의

높은 아치, 매끄러운 실루엣 라인을 신선하게 살려내며, 모더니스트 조각가로서 면모를 인정받고 있다.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아테네의 더 허브The Hub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국제적 전시를 선보였고, 클리퍼드 찬스 조각상 Clifford Chance Sculpture Prize, 디어드리 허버드 조각상Deirdre Hubbard Sculpture Award 등에서 수상하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한 미술 전문지의 기사에서는 그를 “제2의 앤



SCULPTURE 1504-2017, GLYNDEBOURNE, INSTALLATION VIEW, 2017, VARIOUS, BRONZE, MARBLE, STEEL, CORTEN



NICK HORNBY, SCULPTURE 1504-2017, GLYNDEBOURNE, INSTALLATION VIEW, 2017, VARIOUS, BRONZE, MARBLE, STEEL, CORTEN

서니 고펠리Antony Gormley”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되도록 재료의 기본 색을 유지하며 순수한 모습을 지켜내려는 닉 혼비의 작업에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건 타고난 섬세함을 바탕으로 빚어낸 군더더기 없고 세련된 굵기와 꺾임 때문일 것이다. 그와 닮은 정직하고 청량한 조각 작품에 계절에 맞는 다양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신타 텐트라와 페인팅이다.

기하학적 패턴과 화려한 색의 조화, 신타 텐트라와 페인팅

지난해 인천 송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드넓은 센트럴파크 광장을 캔버스 삼아 화려한 색채와 도형의 조합이 만들어낸 슈퍼그래픽을 인상 깊게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송도아트시티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여한 신타 텐트라의 공공 미술 작업 중 하나이며, 제목은 ‘바이탈Vital’이다. 1,800㎡의 면적 안에 그려진 그녀의 작품은 제목에 걸맞게 센트럴파크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신타 텐트라는 런던에서 공부한 후 카나리 워프 다리에 ‘뷰티풀 섯 미스테인 포 어 던A Beautiful Sunset Mistaken for a Dawn’이란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계에 눈도장을 찍었다. 2005년 마이클 모저상, 2006년 도이치뱅크 어워드, 2012년 영

국왕립학술원상 등을 휩쓰는 등 데뷔 후 얼마 되지 않아 세계적 아티스트로 자리 잡으며 세계 곳곳의 전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선명하고 진한 패턴과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기도 한 여성적 요소로 사용되는 핑크색, 여기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남성적 요소로서 어두운 톤의 묘한 조합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사로잡고 있다.

분리된 주제와 매체, 그러나 미적 감각을 공유하는 작업

닉 혼비의 조각과 신타 텐트라와 페인팅의 고집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철저하게 분리된 조형 미술의 형태를 띤다. 그럼에도 그들의 작업은 조화를 만들어낸다. 이들의 작품 중 ‘Yes, Yes, in Chinese Blue, Hague, Cornforth, Telemagenta, Railings, Lush Pink and Drawing Room’(2015)은 마치 다비드상을 보는 듯하다. 닉 혼비가 만들어낸, 컴퓨터 그래픽으로 깎아낸 듯한 조각상 실루엣에 텐트라 특유의 ‘컬러 콜라주color collage’를 대입함으로써 가장 심플하게 각자의 캐릭터를 드러낸 작품으로 꼽힌다. 2013년 영국 카나리 워프 전시를 계기로 시작된 그들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이후 2014년 노스 켄싱턴North Kensington 공공 프로젝트, 2015년 독일 초이엔라거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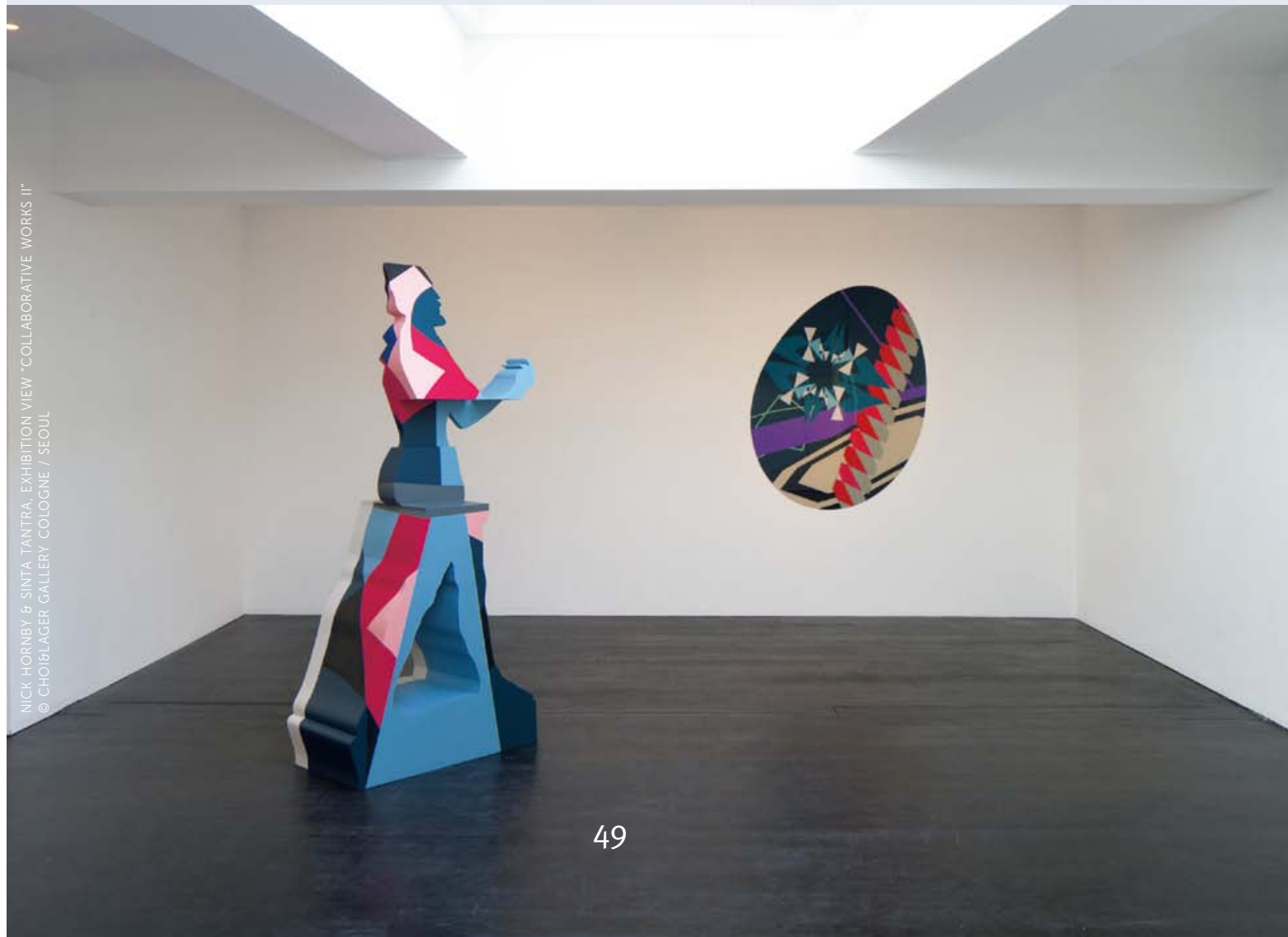
전시까지 이어졌다. 현재 각자 개인 작업에 매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두 사람은 2019년이 되면 독일 초이엔라거 갤러리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둘 이상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일에는 충돌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닉 혼비 역시 그들 사이에도 분명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한다. 두 아티스트 모두 각자의 개인 작업과 전시 일정을 소화하기도 늘 시간에 쫓기는 상황. 그렇기에 직접 만나서 고민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의 이메일과 각자가 디자인한 색감이나 조각 모형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여러 차례의 의견 나눔이 귀찮을 법도 하지만, 실수한 것은 수정하고 잘된 디자인은 업그레이드하며 사소한 의견도 나누는 일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소통이며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닉 혼비는 설명했다. 이 반복되는 소통이 특정한 공간에 어울려야 하는 조각의 특성과 분위기를 완성해 간다고 그는 믿고 있다. 이런 팀워크가 이들이 함께할 때 더욱 새롭게 빛나는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각자의 작업을 존중하면서도 욕심보다는 더 많은 배려를 나누는 두 아티스트의 작업은 보다 더 나은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2년 후면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COOPERATION_NICK HORNBY & SINTA TANTRA WWW.HORNBYTANTRA.COM



NICK HORNBY & SINTA TANTRA, KENSINGTON_COMMISSION_MODEL © CHOIBLAGER GALLERY COLOGNE / SEOUL



NICK HORNBY & SINTA TANTRA, EXHIBITION VIEW "COLLABORATIVE WORKS II" © CHOIBLAGER GALLERY COLOGNE / SEOUL